

## 17C 조선의 포수 훈련방식과 군율

김 영 준\*

1. 머리말
2. 17C 조선 포수의 훈련방식
3. 군율이 훈련방식에 미친 영향
4.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 사학계에서 군사사에 대한 연구는 군사문제를 정치·제도사 측면에서 다루는 군제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제도는 무기·편제·훈련·전술 등 다양한 요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어 군사기술이나 국제정세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연구 주제이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제도 연구는 지나치게 군의 편제나 군역제의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군사제도가 훈련이나 전술, 그리고 전쟁수행방식 등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몇 가지 아쉬운 점 중 하나이다.

---

\*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졸업

서구 학계에서는 1950년대부터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교수의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sup>1)</sup>을 필두로 군사적 변혁을 근대국가 형성의 배경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식이 시도되었다.<sup>2)</sup> 르네상스시기 절대왕정의 수립에는 군대의 팽창이라는 요소가 큰 기여를 했으며,<sup>3)</sup>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영국의 마이클 로버츠 교수는 이 시기에 등장한 화력무기인 머스킷(Musket)이 기존에 근력(筋力)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창검에 대해 우위를 확보했다는 점이야말로 군사상의 혁명적인 변화라고 지적하였다. 이 새롭게 등장한 보병집단은 표준화 된 화력무기를 토대로 짧은 시간에 양성되어 더 많은 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로버츠 교수는 「*The Military Revolution 1560~1660*」라는 논문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군사혁명(軍事革命)’이란 용어로 정의하며, 이것이 단순히 군사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1955년에 발표된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은 그 후 20년 동안 큰 반론 없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로버츠 교수의 이론에

1) “First came a Revolution in tactics : the replacement of the lance and pike by the arrow and mucket, as the feudal knights fell before the firepower of massed archers or gunners. associated with this development were a marked growth in army size right across Europe and the adoption of more ambitious and complex strategies designed to bring these larger armies into action.” ‘군사혁명론’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Geoffrey Parker, 『*The Military Revolution :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1500~18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1.

2)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 2007, 23쪽 참조.

3) 페리 앤더슨 저, 김현일 역, 『절대주의 국가의 계보』, 양서각, 2010, 51쪽 참조.

4) 로버츠 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총포류가 창을 대신하는 무기상의 변화, 둘째, 군대 규모의 엄청난 증대, 셋째, 대규모의 복합적인 전술의 사용, 넷째, 사회에 대한 군대의 영향 증가 등이며, 그는 특히 네덜란드의 마우리츠 반 나사우(Maurits van Nassau)와 스웨덴의 구스타프 2세 아돌프(Gustav II Adolf)가 개발한 부대 대형을 주목했다.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187~188쪽.

처음 도전장을 내민 것은 조프리 파커(Geoffrey Parker) 교수였다. 파커 교수는 1976년에 「군사혁명-하나의 신화인가?(The Military Revolution-a myth?)」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로버츠 교수의 ‘군사혁명론’을 검증하였다.<sup>5)</sup> 하지만 파커 교수도 기본적으로 로버츠 교수의 이론을 수용하였으며, 오히려 파커 교수는 로버츠 교수의 이론을 확장·보완하여, 「나가시노 전투의 세계사 : 유럽군사혁명의 충격 1500~1800년」이란 논문을 통해 비슷한 시기 일본에도 ‘군사혁명’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 존재했다고 주장하였다.

파커 교수의 주장은 일본 사학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중 구보타 마사시(久保田正志) 교수는 그의 저서 『일본의 군사혁명』을 통해 ‘군사혁명론’을 일본사에 도입시키는 과감한 시도를 하였다. 구보타 교수는 유럽에서 일어난 군사혁명이 과연 파커 교수의 주장대로 일본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 검증함과 아울러, “일본의 군사혁명은 중간에 중단되었다.”는 파커 교수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구보타 교수는 “일본의 군사혁명은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혁명을 끝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주장하며, 특히 일본이 처한 역사적 환경과 유럽이 처한 역사적 환경이 달랐음을 제시하였다.<sup>6)</sup>

일본학계에까지 영향을 미친 ‘군사혁명론’은 한국 사학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선의 군사적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영구 교수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sup>7)</sup> 군대의 훈련방식 및 전술운용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기는 하지만<sup>8)</sup>

5) 파커 교수는 특히 로버츠 교수가 “군사혁명의 원년을 1560년으로 설정한 것은 불행한 선택이었다.”고 혹평을 가했다. 이명환, 「근대 초 유럽의 군사혁명론」, 『서양사론』 제94호, 2007, 258~259쪽.

6) 구보타 마사시 저, 허진녕·박홍배·심호섭 역, 『일본의 군사혁명』양서각, 2010, 247쪽.

7) 노영구, 「『군사혁명론(Military Revolution)』과 17~18C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제36권, 서울대학교 서양사연구회, 2007, 참조.

8) 노영구, 「인조초-병자호란 시기 조선의 전술 전개」, 『한국사학보』 제41호, 고려사학회, 2010 참조.; 이종호, 「병자호란 개전 원인과 조·청의 군사전략 비교연구」,

아직까지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서양 학계에서는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연구 방식에 대한 비판과<sup>9)</sup> 전쟁을 문화적 관념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sup>10)</sup> 이제 한국 군사사의 연구 방법에도 연구주제에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군사적 변화들은 유럽학계에서 제시한 ‘군사혁명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중 특히 조총의 도입으로 인해 군사상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17C 조선은 수천 정의 조총을 생산할 정도로 화기 개발에 적극적이었었으며<sup>11)</sup>, 효종대에 표류해 온 네덜란드 선원 하멜(Hendrik Hamel)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보병들은 대부분이 머스킷으로 무장할 정도로 많은 수량의 조총을 확보하고 있었다.<sup>12)</sup>

조선 후기 화기의 도입이 유럽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군사상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노영구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의 역사적 흐름이 유럽과 달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럽과 비슷한 일련의 변화를 갖긴 했으나 그 세부적인 내용 또한 면밀히 검증해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군사기술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적 관념을 고찰해 봄으로써 당시의 실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군사』 제90호, 군사편찬연구소, 2014 참조.

9) 존 린 저, 박일송 역, 『배틀, 전쟁의 문화사』, 청어람미디어, 2006, 22~25쪽.

10) 이내주, 「서양사 속의 전쟁 ; 군 막사의 경계를 넘어서 -서양 현대 군사사 연구의 동향과 전망-」, 『서양사론』 제107권, 한국서양사학회, 2010, 참조.

11) 『인조실록』 권 19, 6년 11월 17일(갑술).

12) “철관과 뿔이 달린 투구와 갑옷을 입은 병사들도 있다. 이들은 화승총과 칼, 단창으로 무장하고 있다. 대장들은 활과 화살로 무장하고 있다. 모든 병사들은 화약 50발분의 총탄을 자비로 부담하며, 반드시 그것들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헨드릭 하멜 저, 김태진 역, 『하멜 표류기』 서해문집, 2003, 112쪽.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여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7C 조선군의 중핵을 담당했던 포수의 훈련방식과 군율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먼저 본론인 2장에서는 포수의 훈련을 크게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사격훈련과 집단적으로 이뤄지는 진법훈련으로 나누어 검토해 보겠다. 다음으로 본론인 3장에서는 군대 내에서 적용되는 규범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광의(廣義)의 군율로 포상제도 중 하나인 참수급제(斬首及第)와 처벌제도인 연좌제(連坐制)를 통해 군율 속에 나타난 문화적 관념이 훈련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본고의 연구 주제가 17C의 군사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했고, 또 연구 대상이 포수에만 국한된 것은 본고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2. 17C 조선 포수의 훈련방식

### 가. 사격훈련 방식

‘군사혁명론’에서 로버츠 교수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16C 말 네덜란드의 오라니엔 공(公)인 마우리츠(Mauritz)가 행한 군사 개혁은 당대 유럽에서 가히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당시 화승총을 다루는 총병은 불을 붙인 화승을 왼손으로 계속 쥐고 있는 상태에서 화약과 탄환을 장전하고, 뇌관 역할을 하는 약실에 발화약을 채우는 작업을 하려면 세심하고 정확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2분가량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적의 기병이 돌격해오면 한 발 이상 발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마우리츠는 적의 기병 돌격을 분쇄하기 위해 일제사격전술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백 발의 탄환을 개별적으로 쏘기 보다는 일제히 발사함으로써 집중된 화력을 발휘하여 탄막(彈幕)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탄막을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총병의 조직력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었다. 후행사격, 즉 카라콜(Caracole) 기동이라는 이 방식은 머스킷 총을 든 병사가 대형을 짜고 전투에 임했을 때, 맨 앞 열의 병사들이 총을 쏜 후 자기가 속한 대열의 맨 뒤로 달려가서 재장전을 하는 동안 두 번째 열의 병사들이 총을 쏘는 것이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첫 번째 열의 병사들이 재장전을 완료하자마자 다시 두 번째 열이 적에게 일제사격을 퍼부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열을 여러 개로 만들면 끊임없이 적에게 치명적인 교차사격을 퍼부을 수 있었다.

〈자료 1〉 파리 군사박물관에 소장된 마우리츠 훈련법 동판화<sup>13)</sup>



13) 이 동판화들은 오라니엔공 마우리츠의 사촌이자 긴밀한 협력자였던 나사우 백작 요하네스 2세가 야코브 드 헤인이라는 화가에게 그리게 한 것이다. 이 그림들은 1607년에 한 권의 책으로 간행되었으며, 폴리오 판형의 한 페이지 전체에 한 가지 자세를 싣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령을 덧붙였다. 윌리엄 맥닐 저, 신미원 역, 이내주 감수,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185쪽.

따라서 총병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하게 발사 → 우로회전 → 탄약 장전 → 위치이동 등의 동작을 순서에 맞게 시행해야 했으며, 이처럼 복잡한 기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반복연습이 필요했다. 따라서 마우리츠는 훈련교관들이 병사들의 각 동작이 제각각 이뤄지지 않고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분당 발사횟수를 더 늘리기 위해 각 동작을 세심하게 구분하여 그린 동판화를 제작했다.

위 동판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우리츠는 화승 심지를 총에 꽂는 간단한 한 동작조차 5개의 구분동작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이처럼 마우리츠는 적에게 신속한 사격을 가하기 위해, 머스킷의 장전과 발사에 요구되는 상당히 복잡한 움직임을 42개의 구분동작으로 분석하고, 각 동작마다 이름을 붙였으며, 그 동작을 하도록 명하는 적절한 구령을 정했다. 따라서 그의 병사들은 구령에 따라 일제히 각각의 동작을 취하였으며, 모든 병사가 한꺼번에 박자를 맞추어 움직이기 때문에 전원이 동시에 사격준비가 완료되었다. 즉, 유럽에서는 화승총이 가지는 기능상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탄막을 형성하는 일제사격전술이 도입되었으며, 이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총병들은 명중률을 중시하는 개별적인 사격훈련이 아닌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기 위한 집체훈련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14)</sup>

한편 17C 조선의 군사적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신식무기인 조총을 다루는 포수의 창설이다. 포수는 기병보다 양성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sup>15)</sup>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였다.<sup>16)</sup> 특히

14) 사실 보다 정밀한 사격을 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일찍이 가능자와 가능쇠의 발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는 정밀사격이 특별히 중시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18C로 갈수록 집중사격과 신속한 사격을 위해 정밀 사격은 의도적으로 등한시된다. 한스 델브뤼크 저, 민경길 역, 『병법사』 제Ⅷ권, 한국학술정보, 2009, 44쪽.

15) “問于都監，則都監軍兵，各給三保，馬兵則加一保爲四保，故上馬只給豆九斗，下馬給

17C 중엽에 이르면 북벌정책으로 인해 적어도 중앙군 소속의 보병들은 대부분 화승총으로 무장했으며, 1682년에 훈련도감의 편제를 보면, 마병 6초(哨)와 포수 20초, 살수 6초로 구성되어 사실상 사수가 누락되고 포수의 수효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이러한 추세는 그 후에도 계속되는데, 19C 초반의 기록인 『남한지(南漢志)』에 의하면, 삼군문(三軍門)의 무기 비축 내용 중 화기가 앞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sup>18)</sup> 17C 이후 조선군의 주요 전력은 포수라는 사실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조총은 본래 조선에 없던 무기였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포수의 훈련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16C말 조선에 도입된 삼수병(三手兵)체제는 본래 명(明)의 장수 척계광(戚繼光)이 저술한 『기효신서(紀效新書)』를 근간으로 한 것이므로, 포수의 훈련법 역시 대체로 『기효신서』에 의거하게 되었다.<sup>19)</sup>

(전략)...상격(賞格)을 마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기효신서』에 ‘구중(九中)은 초등(超等), 팔중은 상상(上上), 칠중은 상중, 육중은 상하, 오중은 중상, 사중은 중중, 삼중은 중하, 이중은 하상, 일중은 하중, 무분(無分)은 하하이다. 중관(中貫)이나 중변(中邊)을 막론하고 상하(上下) 이상은 논상하고, 중상과 중중은 면책하고, 중하 이하는 차등 있게 논벌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조식(條式)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포수들의 경우 중관이 많은 자는 획수(畫數)가 우수하여 상등에 처하고, 중변이 많은 자는 중수(中數)가 중관한 사람보다

六斗, 別無給芻之事云矣, 敢啓”. 『승정원일기』, 효종 3년 9월 20일(무자).

16) 박제환, 「임진왜란기 한·일 양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일고찰」, 『한일관계사연구』 제6집, 한일관계사학회, 1996, 65~66쪽.

17)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상권, 창설조(創設條), 숙묘조(肅廟朝), 8년(임술) 3월 16일.

18) 『남한지』에 수록된 무기 비축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오종록, 「조선후기 수도방위체제에 대한 일고찰 ; 오군영의 삼수병제와 수성전」, 『사총』 제33권,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88, 36~41쪽.

19) 『선조수정실록』 권 28, 27년 2월 1일(경술).

많아도 획수가 도리어 그 아래에 처했으므로 7획 이상은 제직(除職)과 면천(免賤)을 혼합하여 마련하고 상상등은 목면 1필을 더 주었습니다...(중략)...논상의 규정은 『신서』의 규식을 준용하되 중관·중변을 구분치 말고 단지 중(中)이 많은 것으로 상(上)을 삼아야 하니, 초등은 1등을 더하여 논상하고 상상은 제직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除職)하며 상중은 목면 2필, 상하는 목면 1필을 제급하는 한편, 살수도 같은 예로 논상해야 합니다.<sup>20)</sup>

당시 실록에 나타난 훈련도감 포수들의 사격훈련 기록을 보면 『기효신서』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표적을 세우고 과녁을 명중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지방군인 속오군의 경우 대개 훈련도감에서 교관을 파견하여 조련을 시켰기 때문에 지방군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훈련을 시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21)</sup>

〈자료 2〉 『북정일기(北征日記)』에 기술된 함경도 포수들의 사격 훈련 현황<sup>22)</sup>

차 수	일 자(1658년)	장 소	명중자수	명중률
1 차	4월 6일	회 령	51명	25%
2 차	4월 21일	회령부 남문루	기록없음	기록없음
3 차	5월 17일	송화강 영고탑	40명	20%
4 차	5월 18일	송화강 영고탑	65명	32.5%
5 차	5월 21일	송화강 영고탑	좌초 : 67명 우초 : 56명	평균 : 61.5%

실제로 17C 중엽에 이루어진 2차 나선출병 당시 함경도 지역 포수들의 훈련 방식을 보면 훈련도감에서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정일기(北征日記)』에 기술된 조선군의 사격훈련 기록에 따르면, 이 때 출병한 조선군은 총 5차례에 걸쳐 사격 연습을 하게 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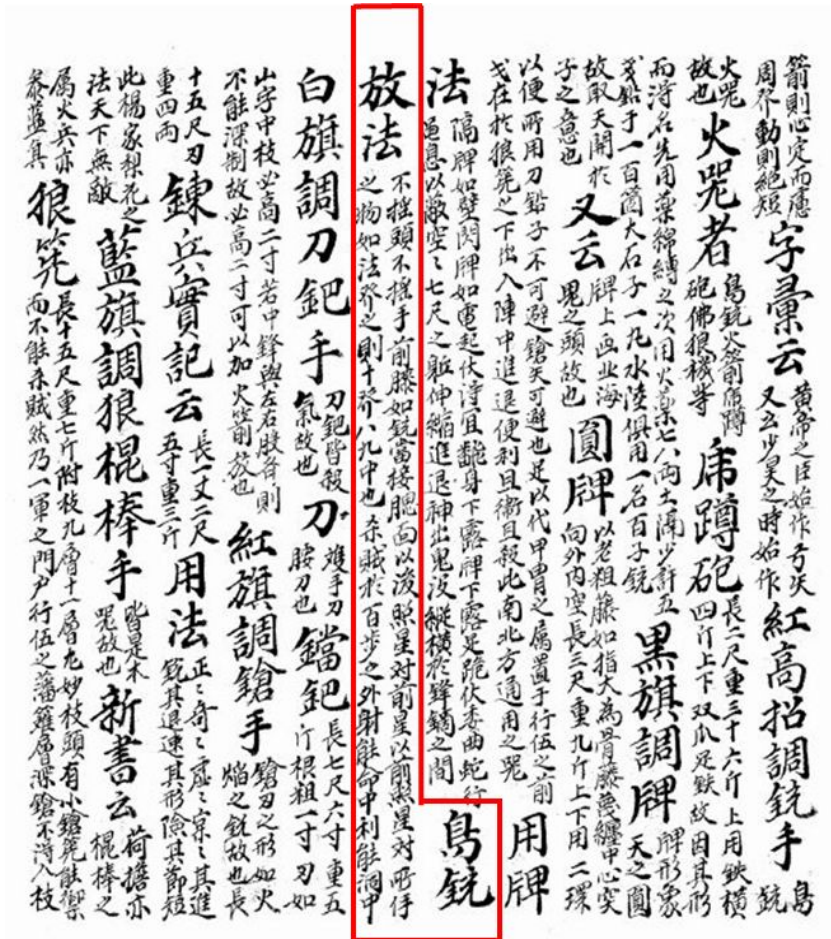
20) 『선조실록』 권 62, 28년 4월 24일(병인).

21) 『선조실록』 권 62, 28년 4월 24일(병인).

22) 『북정일기』에 나타난 조선 포수들의 사격 훈련은 아래 표로 정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신류 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 『(국역)북정일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74~75쪽.

사격훈련 방식은 실록에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표적을 세우고 조준사격을 하는 방식이었으며, 조선 포수들의 평균 사격실력은 약 25%의 명중률로 평가되었다.

〈자료 3〉 『병학지남주해(兵學指南註解)』에 기술된 '조총방법(鳥銃放法)'<sup>23)</sup>



23) “鳥銃放法 不搖頭不擡手前膝如銃當接腮面以後照星對前星以前照星對所擊之物如法發之則十發八九中也。” 『병학지남주해』, 조총방법.

17C 조선의 대표적인 병서 『병학지남(兵學指南)』의 해설서인 『병학지남주해』에 포수들의 사격자세를 살펴볼 만한 자료가 있다. 『병학지남주해』에 기술된 ‘조총방법(鳥銃放法)’에서는 조총의 사격 자세에 대해 “머리를 움직이지 말고, 손을 흔들지 말고, 앞의 무릎도 같다. 총은 마땅히 뺨면에 접붙이고, 이후로써, 조성(照星：가늌자)을 앞 눈금(가늌쇠)에 맞춰보고 전조성(前照星：가늌쇠)으로써 사물의 조준한 바를 맞춰본다. 법규와 같이 그것을 쏘면 곧 10발 중 8~9번 명중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머리나 손을 흔들어서는 안 되고 앞무릎도 같다.’는 대목으로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체가 흔들릴 때 조준점이 미세하게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음으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총은 마땅히 뺨면에 접붙인다.’는 대목인데, 이는 조선군이 사용한 조총은 총기를 뺨에 최대한 밀착시키는 ‘면착식(面着式)’이었음을 시사(示唆)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학계에서도 포르투갈 상인들을 통해 유입된 일본의 조총이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하는 ‘견착식(肩着式)’이 아닌, 개머리판을 뺨에 밀착시키는 ‘면착식’으로, 정교하고 명중도가 높은 수렵용 총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sup>24)</sup> 따라서 사실상 일본의 조총을 모방하여 제작한<sup>25)</sup> 조선의 조총 역시 정교하고 명중도가 높은 ‘면착식’ 총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정교한 명중률을 자랑하는 총기 구조는 조선 포수들의 사격 훈련 방식에 매우 적합했고, 『병학지남주해』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미세한 움직임조차도 명중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조선 포수의 사격훈련 방식은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방식이었고, 사용하는 조총 역시 명중률을 높이는데 적합한 구조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4) 구보타 마사시, 앞의 책, 50쪽.

25) 『선조실록』 권 46, 26년 12월 2일(신해).

## 나. 진법훈련 방식

17C에 널리 사용되던 화승총은 휴대용 화기의 초기 형태로 방아쇠를 당기면 화승이 연기를 내며 소량의 화약이 들어있는 약실로 타들어 갔고, 그렇게 뇌관이 점화되면 총열의 끝에서 섬광이 일면서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었다.<sup>26)</sup> 이처럼 화승을 이용해 점화를 한다는 방식 때문에 화승총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무기였다. 화승총은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 사용할 수 없었으며, 장전 시 화약 가루나 불씨가 튀어 몸에 붙이 붙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sup>27)</sup> 또 장약(裝藥)에서 약간의 실수라도 생기면 불발이 나거나 심하게는 총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기 일쑤였으며, 이러한 사고가 부대 전체에게 치명적인 패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sup>28)</sup> 따라서 화승총은 이러한 기술적 한계성과 더불어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대형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일제히 발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다.<sup>29)</sup>

조선 포수들이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조준사격에 중점을 두었다면, 유럽의 총병들은 명중률보다는 신속한 탄막을 요구하는 일제사격을 선호하였다. 이처럼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에 대한 훈련 방법도 규율에 의해 개인에게서 최대의 힘을 이끌어내고, 각 부분을 정밀하게 조합하여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었다.<sup>30)</sup> 따라서 이처럼 정교한 구조적 분할 방식의 훈련법인 ‘교련(Manoeuvre)’은 훈련을 통해서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고, 정교한

26) 영국 왕립 무기 박물관 저, 정병선 역, 『무기(WEAPON)』, 사이언스북스, 2009, 148쪽.

27) 한스 델브뤼크, 앞의 책, 43~44쪽.

28) 이규익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연려실기술』, 민족문화추진회, 1977, 265쪽.

29) 존 린, 앞의 책, 263~264쪽.

30)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3, 242쪽.

지휘통제를 기반으로 병사들을 언제든지 교체 가능한 부품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다.<sup>31)</sup> 따라서 유럽의 사격 동작이 조선에 비해 3배나 많게 된 이면에는 각 동작을 정밀하게 구분하고, 통제하려는 유럽인들의 전투문화가 담겨있는 것이다.

유럽의 총병이 화승총이 갖는 한계성을 넘어서기 위해 신속한 탄막 형성과 구조적 분할 방식의 훈련법인 교련을 선호했다면, 조선의 포수들 역시 조총의 화승식 발사 방식이 갖는 한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법훈련을 필요로 하였다. 17C 조선 포수들의 사격훈련 방식을 다룬 또 다른 병서로, 1603년에 저술된 『신기비결(神器秘訣)』은 일반 병사들의 화기 운용과 훈련을 위해 화약 수의 분량이나 탄자(彈子)의 많고 적음, 화기 장방법(裝放法), 그리고 군졸 연습법 등을 기술한 병서였다.<sup>32)</sup> 이러한 병서가 편찬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화기의 제작과 사용은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오히려 병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이며,<sup>33)</sup>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훈련을 통해 실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신기비결』에서는 조총의 사격 동작을 14개로 구분하였는데,<sup>34)</sup> 이는 명(明)의 『기효신서』에서 사격동작을 11개로<sup>35)</sup> 구분한 것을 좀 더 보완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격 동작을 확실히 구분한 이유는 각 동작을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시행하여, 동시에 발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31) 윌리엄 맥닐, 앞의 책, 190~191쪽.

32) 허선도, 「<신기비결>연구(상)-한국화약병기의 장방법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제5권, 국민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1983, 58쪽.

33) 허선도, 「조선전기 화약병기의 발달과 그 금비책-국방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동양학』 제14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4, 25~26쪽.

34) “一洗銃 二下火藥 三以朔(木+朔)杖 送藥室 四下鉛子 五以朔杖 送鉛子 六下紙 七送紙 八開火門 九下線藥 十搖火門 使門藥 下合於身藥 十一仍閉火門 十二龍頭安火繩 十三廳令開火門 十四准賊人 舉發.” 한효순, 『신기비결』, 총가(銃歌).

35) 척계광, 『기효신서』 권 3, 「수족편(手足篇)」, 총가(銃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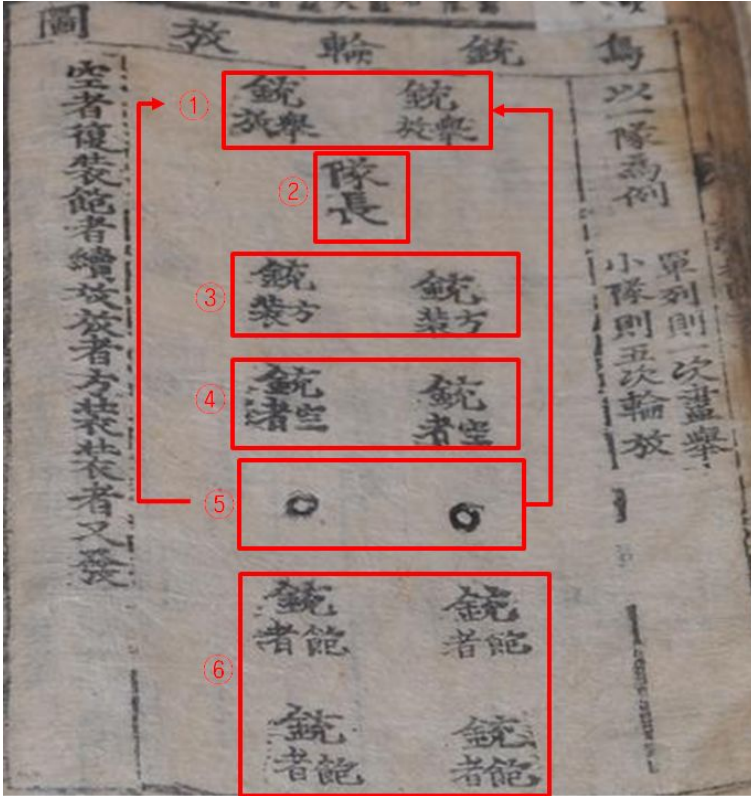
위험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포수들은 사격 훈련 시 명중률을 중시여기는 훈련을 받았지만, 진법 훈련에서는 집중 화력을 발휘하는 일제사격전술을 구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신기비결』에 나타난 포수들의 훈련방식은 일면 마우리츠의 방식과 비슷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양자 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마우리츠는 총을 쏘기 위한 동작을 무려 42개로 나누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불과 1/3 수준인 14개 동작으로 나누었다. 물론 양측이 사용하는 총기의 종류가 완전히 같은 기종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시기 유럽에서도 여전히 화승총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며, 발사 방식 자체에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구분동작의 개수를 살펴보면, 마우리츠는 병사들의 매우 세밀한 동작 하나 하나까지 철저히 구분 지었던 반면, 조선에서는 아주 중요한 14개의 동작을 제외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차이는 실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유럽의 총병들이 신속한 탄막 형성을 중시 여겼다면 조선의 포수들이 사용한 일제사격전술은 신속성과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사격전술이 실제 전술에 운용된 대표적인 예로, 1636년 정온(鄭溫)이 개발한 삼첩진(三疊陣)이라는 2단 연속 일제사격전술을 들 수 있다.<sup>36)</sup> ‘삼첩진’에서는 포수를 2열로 배치하여 기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앉고, 일어서는 방식으로 연속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방어에 용이한 일제사격 전술로 판단된다.

36) 다만 삼첩진이 실전에서 실제로 활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증이 필요할 듯 하다. “皆重行而坐. 放則立. 既放則坐...(중략)...彼若鶴翼而來. 則前隊炮一千先放. 放後坐而藏藥. 後隊一千又放.” 정온, 『동계문집(桐溪文集)』 권 3, 병자차자(丙子劄子).

<자료 4> 『병학지남(兵學指南)』에 기술된 조총운방도(鳥銃輪放圖)<sup>37)</sup>



『병학지남』에서는 「조총운방도」를 통해 포수들을 5열로 배치하여 연속적으로 일제사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로 보아 조선의 일제사격전술은 적어도 17C 초반에 개념이 잡혀 있으며, 그것이 17C 중반 이후로 가면 구체화되어 훈련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 포수들이 평소 훈련에서 사격의 신속성보다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도록 요구받았는데, 과연 실제 전투에서 운용된 일제사격 전술에서도 이러한 훈련목표가 관철되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37) 『병학지남』, 권 3, 「영진총도[상]」, 조총운방도.

없다. 만약 조선의 포수들이 실제 전술운용에서 명중률을 무시한 채 유럽의 일제사격전술과 같이 신속한 탄막을 구사했다면, 앞서 언급한 사격 훈련방식들은 실전에서는 쓸모가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검토하기 위해 실전에서 행해진 조선 포수들의 전술운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광해군시기 명의 요청에 따라 요동으로 파병되어 후금(後金)과 일전을 벌인 사르후(Sarhu)전투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당시 요동으로 파병된 조선군은 약 1만여 명<sup>38)</sup>의 포수로 구성됐는데, 이들은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後金)의 군대를 맞아 대패하였다. 당시 사르후 전투에 참전했던 종사관 이민환(李民奐)은 자신의 수기인 『자암집(紫巖集)』에 “지난해(1619년) 우리 군대는 오로지 포수에만 의지하였기에 적군의 돌격을 맞이할 때 미처 장전을 하지 못하여 적의 기병이 군진으로 들어왔다.”<sup>39)</sup>라고 술회하였다. 이민환의 기록을 볼 때, 조선군의 사격 방식은 기병의 돌파력을 막을 만큼 신속한 사격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사르후 전투의 패전 요인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 1636년에 발발한 조·청전쟁 당시 동선령(洞仙嶺) 전투에서 도원수 김자점의 별장으로 출진했던 이완은 포수들을 협곡에 매복한 후 적을 유인하여 일제사격전술로 큰 타격을 주었다.<sup>40)</sup> 또 같은 해 평안병사 유림(柳琳)은 백동(柏洞) 일대의 고지에 진을 치고, 목책을 둘러 방호시설을 갖춘 후, 기습과 유격전으로 청군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sup>41)</sup> 그리고 1654년에 청(淸)의 요청으로 영고탑(寧古塔)으로

38) 이민환, 『자암집(紫巖集)』 권 5, 잡저(雜著), 「책중일록(柵中日錄)」.

39) “上年。我軍專恃砲手。當兵衝突。未及再藏而賊騎已入陣中矣”, 이민환, 『자암집』 권 6, 잡저, 「건주견문록(建州聞見錄)」.

40) “遂使砲手五百。左右埋伏。約曰。聞吾號砲齊發...(중략)...遂與引賊入谷中。發號砲。伏兵齊發。賊大衄。入谷者無有得脫者”, 이단하, 『외계집』 권 10, 「우의정리공시장(右議政李公諡狀)」

41) “日晡時。有白馬張馳進。琳擇十卒。使潛踰柵。並發砲殺之”, 이극익, 앞의 책, 586쪽.

출병한 조선군은 강변의 지세가 높은 곳에 진을 치고 유붕(柳棚: 통나무 방패)을 설치하여 엄폐를 한 후, 일제사격을 가해 러시아군을 섬멸하였다.<sup>42)</sup>

이상의 사례들을 볼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조선의 포수들이 지형지물이나 엄폐물을 이용하여 적의 돌격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나 17C 조선의 주적이었던 청이 기병전을 주특기로 한다는 점 때문에 사격속도가 느린 포수로 청의 기병을 막기 위해 요처에 보루를 쌓아 수성전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sup>43)</sup> 이는 신속하지 못한 사격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진법의 형태도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유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여겨진다.<sup>44)</sup> 즉, 조선의 포수들은 일제사격 전술을 사용하긴 했지만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속한 탄막 형성이 아닌, 다소 사격 간격의 틈이 있는 정확한 조준사격을 시행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형지물이나 엄폐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명중률을 중시여기는 조선의 사격전술은 매복이나 기습, 유격전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실제로 조선의 포수들이 그러한 전술을 사용할 시 적에게 매우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3. 군율이 훈련방식에 미친 영향

#### 가. 참수급제(斬首及第)가 사격훈련에 미친 영향

유럽 총병들의 일제사격 전술은 병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42) 『효종실록』 권 14, 6년, 4월, 23일(정축).

43) 『광해군 일기(중초본)』 7권, 즉위년 8월 13일(정묘).

44) 『선조실록』 권 186, 38년 4월 20일(갑자).

기반으로 한 정형화된 선형전술(Linear Formation)이다. 이처럼 유럽인들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정형화된 대형을 선호하였던 것은 당시 절대주의 시대의 근본적인 발전 과정이자 중심이념인 ‘사회적 규율화’가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적·도덕적·심리적인 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sup>45)</sup>

특히 마우리츠의 개혁이 온 유럽에 전파된 후 이제 전장에서 병사개개인의 기민함과 용맹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기사의 무용이나 개인의 용기는 군대의 딱 짜인 일과 속에서 거의 사라져갔고, 점차 규율과 조직력이 강조되었다. 단적인 예로, 이러한 변화들은 루이 14세 시절에 벌어진 열병식을 통해 극대화되어 표출되었다. 그저 숨소리 이외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통제된 열병식의 출현이야말로, 권력에 의한 강제성과 규율중심적인 군사훈련 의식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이처럼 유럽의 군대는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 군대의 군율과 전쟁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조선에서 포수가 처음 창설될 당시,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극심한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특히 개전 초기 탄금대에서 조선이 믿었던 정예기병들의 참패는 조선 정부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정부는 군인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참전동기를

45) 게르하르트 외스트라이히(Gerhard Oestreich)는 1968년 자신의 논문 「유럽 절대주의의 구조 문제」에서 기존의 절대주의에 대한 연구가 주로 국가기구와 통치의 영역에만 관심을 집중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절대주의 시기의 주요한 특징을 국가기구를 비롯한 교회·경제·사회·문화 제 분야에서 규율과 질서에 대한 요구의 증대에서 찾았다. 외스트라이히의 ‘사회적 규율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황대현, 「16~17C 유럽의 ‘교과화 과정’에 대한 연구사적 고찰」, 『역사교육』 제100집, 역사교육연구회, 2006, 296~297쪽.

46) 어느 날 부대의 조련을 막 끝낸 미셸 대공(le grand-duc Michel)은 이렇게 말했다. “좋았어. 그들은 그저 숨만 쉴 뿐이야.” 이처럼 신체에 대한 철저한 규율과 통제야말로 당대 유럽의 군대가 추구했던 훈련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 앞의 책, 295쪽.

부여하기 위해, 상벌을 엄격히 하여 군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조선은 이전부터 행해오던 포상제도인 참수급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군공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sup>47)</sup>

참수급제는 병사들로 하여금 군공에 대한 경쟁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섬멸전으로 전과확대를 유도할 수 있었다.<sup>48)</sup> 이러한 제도는 특히 사회적 하층민으로 구성된 병사들에게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큰 동기 부여가 되었다. 1646년에 일어난 관서지방의 반란을 토평(討平)하기 전에 비변사에서 반군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격문에 보면, 반군 수괴의 목을 참획하여 올 시, 신분상승 내지는 상당한 재물의 포상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물론 이것은 반군들을 회유하기 위해 보낸 격문이므로, 조선군 전체에 적용되는 군율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관군에게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심어주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적의 수급은 자신의 전공을 과시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조선의 포수들은 전투에서 일발필중(一發必中)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sup>50)</sup> 물론 혼전이 벌어질 경우 포수들의 사격 명중률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앞서 언급한 백동 전투나 영고탑 전투에서와 같이 소규모 분견대(分遣隊)로 유격전이나, 매복, 기습과 같은 전술행위를 할 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즉, 참수급제는 당시 포수들에게 목표의식을 확립시켜 주고, 명중률을 중시하는 사격훈련 방식에 동기부여를 제공한 넓은 의미의 군율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7) 『인조실록』 권 15, 5년 3월 5일(임신).

48) 『선조실록』 권 125, 33년 5월 8일(경술).

49) 『인조실록』 권 47, 24년 4월 3일(기묘).

50) “殺賊於百步之外射能命中利能洞中.” 『병학지남주해』, 조충방법.

참수급제는 군인들의 참전동기를 독려하거나 군공을 경쟁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전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끌었지만 경우에 따라서 무분별한 살육을 유도했기 때문에, 평화기에는 장려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sup>51)</sup> 따라서 평시에는 참수급제를 대신하여 시취(試取)를 통해서도 군공을 경쟁하는 구도를 형성하여, 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확립하고자 했다. 국왕인 선조는 포수와 사수가 서로 경합(競合)하도록 하는 훈련 방식을 지시했는데, 이는 병사들이 상호간에 군공을 경쟁하는 심리를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sup>52)</sup> 이처럼 조선의 포수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사격술은 실전에서 자신의 전공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동시에 평소 훈련 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무예(武藝)였다.<sup>53)</sup>

그러나 17C 후반에 들어서면서 평화가 정착되자, 참수급제를 이용해 군공에 대한 경쟁을 독려할 기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8C 초에 벌어진 이인좌의 난에서 토벌대 사령관이었던 오명항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을 우려하여, 적의 수급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적을 생포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sup>54)</sup> 이는 인조 시기 비변사가 반군에게 보낸 회유 격문에서 적의 수급을 취해 올 때 포상을 하는 방식과는 대조적인 분위기인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북벌정책이 종료된 17C 후반, 숙종 중엽에 이르면 참수급제는 더 이상 강력한 규범으로 자리잡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쟁이

51)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선조 27년에 민간인의 수급을 일본군의 수급으로 속여서 거래하는 참수급제의 부작용이 지적되었다. 『선조실록』 권 50, 27년 4월 18일(병인). ;인조 15년에 일어난 가도 함락 사건에서 조선군의 한인(漢人) 학살 또한 조정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나만갑, 윤재영 역, 『(국역)병자록(丙子錄)』, 정음사, 1979, 269쪽. ;군사편찬연구소, 『민족진란사(4)-병자호란사』, 국방부, 1986, 248쪽.

52) 『선조실록』 권 61, 28년 3월 23일(병신).

53) 조선후기에는 중일시(中日試)를 통해 무예포수를 선발하여 여러 가지 특전을 주기도 하였다. 《續》“砲手良人一次三中者, 兼司僕付料, 限一年, 二次三中者, 限己身無間, 連三次三中及貫三中者, 稟旨, 直赴殿試.” 『대전회통大典會通』, 「병전(兵典)」, 시취(試取), 무예포수(武藝砲手).

54) 『영조실록』 권 16, 4년 3월 24일(갑술).

종식되는 17C 후반부터는 영향력이 약화된 참수급제를 대신하여 무예를 겨루는 시취를 통해 군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 선호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군공에 대한 경쟁 구도를 확립함으로써 명중률을 중시 여기는 사격훈련 방식을 지향했다는 점은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개인의 무용을 과시하는 행위보다 감시와 통제를 통해 엄격한 규율을 유지하려 했던 유럽의 군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다. 조선의 포수들은 유럽의 군대와 달리 개인의 무용을 과시하는 방법인 참수급제와 시취를 통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으며, 이러한 목표 의식은 조선 포수가 유럽의 총병보다 명중률에 더 집착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 나. 연좌제(連坐制)가 진법훈련에 미친 영향

전통시기에 대다수 국가들은 신분제 사회였고, 그 때문에 군대 내에서도 신분제적 질서가 중요했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심했으며,<sup>55)</sup> 주로 하층민으로 구성된 일반 병사들에 대한 편견도 상당히 잔존해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병사들의 탈영문제와도 관련이 있었으며,<sup>56)</sup> 병사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장교로 하여금 제한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였다.<sup>57)</sup>

55) 페리 앤더슨, 앞의 책, 285쪽.

56) 1775~1777년까지 프랑스의 전쟁성 장관을 역임한 생제르맹(Sant-Germain) 백작은 자신이 거느린 병사들을 “인간 쓰레기들이며 사회에 무용지물인 자들”이라고 묘사하여 일반 병사들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명예를 모르는 자들이라 여겼다. 존 린, 앞의 책, 254~255쪽.

57) 프로이센의 국왕 프리드리히 2세는 그의 저서 『전쟁의 일반원칙(Principes generaux de la guerre)』에서 야간 행군, 숲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군, 숲속에서의 야영, 적을 순찰하기 위한 순찰대의 파견, 추격전 등을 엄격히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조선에서도 역시 군대 내에서 신분제적 질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 기병을 주력으로 삼았고,<sup>58)</sup> 따라서 군대의 내의 핵심 계층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부유한 양인이 주류를 이루었다.<sup>59)</sup> 그러나 『기효신서』의 도입으로 삼수병 체제가 완비되자, 군대는 보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사회적 하층민들이 군대 내에서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자료 5〉 「진관관병편오책」에 기록된 평안도 4개 군 속오군병의 신분별 구성<sup>60)</sup>

직 책	신 분 구 성	총 수
영 장(營將)	守 門 將(4품 이상) 郡 守 (중 4품) 主 簿(중 6품) 出 身	4명
파 총(把總)	出 身 8명 主 簿 1명(義州 中司)	9명
초 관(哨官)	出 身 24명 甲 士 1명 保 人 2명 미 파 약 3명	30명
기 총(旗總)	良 人 92명 奴 1명	93명
대 총(隊總)	良 人 247명 奴 27명	274명

속오군의 창립 초기인 선조 29년(1596년)에 유성룡이 작성한 평안도 지방의 군안(軍案)인 「진관관병편오책」에 의하면, 영변·안주·귀주·의주 등 4개소의 평안도 속오군병의 신분별 구성은 양인이 73.8%이며,

참전동기가 낮은 병사들의 전선이탈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박상섭, 앞의 책, 176~177쪽.

58) 최형국, 「조선시대 기병의 전술적 운용과 마상무예의 변화-임진왜란기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제38권, 역사실학회, 2009, 13쪽.

59)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 연구』, 혜안, 2003, 52~53쪽.

60) 1596년에 유성룡이 작성한 평안도 지방 영변·안주·귀주·의주 등 4개소의 군안인 「진관관병편오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김우철, 『조선 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000, 65~66쪽.

천인은 26.2%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나 속오군은 법적으로 천인의 입속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인의 비율은 후대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sup>61)</sup>

속오군 내에서 천인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양인, 특히 양반계층의 불만이 가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삼수병 내에서 병과 배치를 신분제에 따라 구분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게 된다. 실제로 삼수병 내에서 각 병과가 갖는 신분제적 위상이 달랐는데, 삼수별 신분 구성에서 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살수의 경우 45%, 포수의 경우 40.5%인 반면, 사수는 9.2%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62)</sup> 물론 이것이 평안도 지방만 해당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토대로 새로 창설된 병과인 포수와 살수는 대개 사회적 하층민을 중심으로 모집된 반면, 전통적인 병과였던 사수의 경우 적어도 양인 이상의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궁술은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하는 무예였기 때문에 그 구성 성분도 무예를 연마한 전문 무인층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삼수병 내에서 사수와 포·살수 간의 신분적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sup>63)</sup>

양인과 천인들이 서로 혼합되어 편성된 속오군의 특성상 그 내부에서 신분제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조선 정부는 1627년에 새로 선발된 출신(出身)·무학(武學) 등으로 별도의 부대를 만들어 양반을 속오군에서 제외시켰으며,<sup>64)</sup> 영조 12년인 1736년 무렵에 이르면

61) 영변·안주·구성 등지에서는 천민이 대총(隊總)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총이 대원의 지휘는 물론 속오군이나 봉족(奉足)을 뽑는 데도 관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천민이 대총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변동의 가능성과 양민에 대한 평등의식을 느끼기에 족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태원,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 혜안, 1999. 46쪽.

62) 김우철, 앞의 책, 65~66쪽.

63) 위의 책, 80쪽.

64) 서태원, 앞의 책, 49쪽.

속오군은 국가적인 조치로 천예화(賤隸化)가 이루어졌다.<sup>65)</sup> 이와 같은 속오군의 천예화는 단순히 양반과 양인들의 군역기피 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적 하층민과 함께 속오군에 편성된 양반과 양인들의 신분제적 갈등양상과 그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중앙군인 훈련도감에서 역시 포·살수는 사회적 하층민으로 구성된 것에 비해 사수들은 전문 무인층으로 구성되었다.<sup>66)</sup> 이 때문에 국왕 선조의 포수에 대한 우대정책은 무인들로 구성된 사수들에게 큰 불만을 야기 시켰는데<sup>67)</sup> 이 불만은 단순히 전통 병기인 궁시를 소홀히 한 정책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닌 신분제적 질서에서 온 갈등이었다. 창설 당시 훈련도감의 포수들은 사회적 하층민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사천 노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출신성분에 대해 양반관료들은 많은 비판을 하였고,<sup>68)</sup> 결국에는 선조도 훈련도감에 사노비들의 입대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sup>69)</sup>

〈자료 6〉 「강희이년계묘식년 북부장호적」에 기록된 훈련도감 군병 신분 구성<sup>70)</sup>

	처(妻) 신분			소유奴婢
	氏 1명(妻父 : 進士)			
초관 1戶				42명
포수 27戶	良女 11명	私婢 14명	無 2명	0명
사수 1戶	良女 1명			0명
마병 29戶	良女 15명	私婢 13	未娶 1명	9명
별무사 5戶	良女 5명			8명
故 포수의 처 1戶	私婢 1명			0명

65) 차문섭, 『조선시대 군제연구』, 단국대출판부, 1995, 123쪽.

66) 김종수, 앞의 책, 84쪽.

67) 『선조실록』권 68, 28년 10월 29일(무진).

68) 『선조실록』권 87, 30년 4월 13일(계유).

69) 『선조실록』권 167, 36년 10월 7일(기축).

70) 김종수, 앞의 책, 129~134쪽.

사노비들의 입대를 금지하는 조처 이후에도 여전히 훈련도감 병사들의 전반적인 신분은 사회적 하층민인 경우가 많았다.<sup>71)</sup> 17C의 한성부 호적인 「강희이년계묘식년 북부장호적」에 의하면 이 중 사비(私婢)를 처로 둔 비부(婢夫) 도감군이 44%에 달하고 있었다. 물론 이 자료 역시 17C 말엽 훈련도감 군사 중 극히 일부만의 호적 자료이므로 훈련도감 전체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이 자료 이외에 17C 훈련도감의 다른 호적자료를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통해, 훈련도감 병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름대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군대 내에 사회적 하층민과 천인의 입속 비율이 높아지자 부유한 양인이거나 양반으로 구성된 지휘관 계층은 병사들에 대해 일정한 불신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병사들에 대한 편견은 17C 초반에 특히 문제가 되었던 훈련도감 병사들의 탈영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이때 훈련도감의 병력충원은 모병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병사들 중 상당수가 연고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시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훈련도감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에 대해 “본디 의지할 것 없이 걸식하고 다니던 따위들로 아침·저녁의 끼니나 얻어먹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며 경멸했고, 탈영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sup>72)</sup>

전쟁이 치열했던 17C 초 병사들에 대한 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의 지휘관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 하나는 유교적 가치관에 의거한 지연적·혈연적 연대의식의 강화였다. 물론 이러한 연대 의식 강조가 그동안 전혀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려 말 사병을 혁파하면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장수와 병사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과의

71) 『광해군일기(중초본)』 권 73, 5년 12월, 28일(신해).

72) 『광해군일기(중초본)』 권 73, 5년 12월 28일(신해).

전쟁을 겪으면서 장수와 병사간의 결속력이 부족한 것을 개전초기 패전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대의식 강화가 강조되었다.<sup>73)</sup>

유성룡은 속오군을 결성할 시 각 리(各里)나 각 촌(各村)의 주민이 가까운 데로 합쳐 대오를 구성하도록 권장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거주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 편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훈련할 때나 유사시 군병을 동원할 때 명령을 내리면 일제히 같은 시각에 도착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74)</sup> 또 부대원 간의 연대의식은 단순히 지연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혈연(假血緣)으로도 나타났는데, 장수는 사졸을 자제(子弟)같이 여기고 사졸은 장수를 부형(父兄)같이 여기게 하는 등 상·하간의 인적 유대관계 형성을 중시하였다.<sup>75)</sup>

부대원 간의 유대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연좌의 책임으로 유지하기도 했다. 『제승방략』에 기록된 금령 27조의 내용을 보면 조선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부대원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 간에 강력한 연좌책임을 강조하고 있다.<sup>76)</sup> 특히 『기효신서』에서도 부대원 간의 단결력을 위해 연좌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연좌제의 활용은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sup>77)</sup>

연좌책임을 단순히 군대 내의 부대원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방의 수령과 군역자원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형성되었다. 모병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훈련도감에서 병력충원 방식을 모병제와

73) 『선조실록』 권 48 27년 2월 27일(병자).

74) 유성룡 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역, 『(국역)서애집』 제Ⅱ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97, 267쪽.

75) 『선조실록』 권 51, 27년 5월 30일(정미).

76) 이일 저,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역, 『(국역)제승방략』,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99, 150~153쪽.

77) 척계광, 『기효신서』 권 1, 「속오편(東伍篇)」, 편오해(編伍解).

더불어 승호제(陞戶制)를 실시하였는데, 이때 탈영병에 대한 지방 수령들의 연좌 책임을 물었다.<sup>78)</sup> 그리고 이러한 효과로 인해, 17C 중엽에 이르면 탈영률은 호전되어 훈련도감의 군액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게 되었다.<sup>79)</sup>

연좌제는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 구성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국가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하나의 영예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전투에 임했던 사상자들에 일종에 보훈 처리로 복호제(復戶制)를 실시했다. 그중 특히 전사자에 대해 수령이 직접 제문을 짓고 제사를 지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로 강조하고 실천했다.<sup>80)</sup> 이는 단순히 병사들에게 연좌책임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병사들의 희생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조선군은 연좌제라는 엄정한 군율로 병사들의 이탈을 막고 부대원간의 단결을 도모했으며, 이로 확보된 병사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야전에서 유격이나 기습, 매복과 같은 유연한 전술들을 구사할 수 있었다. 물론 조선의 지형 특성이 이와 같은 전술들을 시행하는데 유리했던 측면도 있었지만, 병사들의 탈영을 두려워해 이러한 전술행위를 금지했던 유럽의 사례로 볼 때, 이는 조선의 군율이 유연한 전술운용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의 정형화된 선형전술과 대비되는 다양한 진법훈련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78) “式三年內若有冒點現發及逃亡未捉者則使該邑以他.” 『훈국사례촬요』, 포보(砲保), 당영(當英), 15년(기미), 5월 11일.

79) 김종수, 앞의 책, 105쪽.

80) 임용한, 「조선전기 군 사상자에 대한 보상제도 연구 -복호제를 중심으로-」, 『군사』 제80호, 국방부, 2011, 90~91쪽.

#### 4. 맺음말

지금까지 17C 조선 포수들의 훈련방식과 군율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정리하자면,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을 맞아 대대적인 군사 개혁을 시도했고, 그 일환으로 중국의 병법체계와 일본의 신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성된 포수의 훈련법은 『기효신서』에 의거하여, 표적을 세우고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하는 것이었으며, 집단 훈련인 진법은 포수들을 여러 층으로 배열하여 일제히 사격을 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의 일제사격술은 유럽에서 행한 것과 같은 신속한 탄막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실전에서 명중률에 상당히 구애를 받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의 병사들은 군공에 대한 경쟁심리를 유발하는 포상제도인 참수급제로 인해 강력한 참전동기를 부여받았다. 포수들은 유격·매복·기습과 같은 상황에서 적의 수급을 취해 자신의 전공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고, 이러한 동기부여는 평소 훈련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하는 사격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당시 병사들은 대개 사회적 하층민이었기 때문에 양반계층으로 구성된 지휘관들로부터 편견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군율인 연좌제를 강력히 적용하게 되었다. 연좌제를 통해 병사들의 탈영률은 상당히 호전되었고, 병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자 유격·매복·기습과 같은 유연한 전술들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성 확보는 포수들의 진법훈련이 유럽의 총병들처럼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진법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된다.

새로운 군사기술인 조총과 『기효신서』의 도입으로 17C 조선의 군사적 환경은 급변하였지만, 그 활용방식 이면에는 참수급제나 연좌제 같은

전통적인 군율들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군율들로 무장된 조선의 포수들은 전장에서 놀랄 만큼 위력을 떨쳤다.<sup>81)</sup> 17C 조선의 군사적 변혁으로 탄생한 포수는 외래의 군사기술들을 모방하여 그대로 이식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만든 것은 단순히 군사기술상의 혁신이 아닌 엄격한 군율 속에 내재된 문화적 관념이었다. 조선 포수들의 훈련방식은 군율 속에 내포된 가치관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고, 전투에서 용맹함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무예'였으며, 유럽식의 정교한 구조적 분할 훈련법인 '교련'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상의 내용들이 비교사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서로 역사적 환경이 다른 집단들의 상황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 연구의 내용이 포수에만 국한되었다는 점, 자료의 한계성과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일부 자료를 논지 전개에 확대 적용하는 무리가 따랐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성으로 인정되며, 부족한 부분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앞으로 군사사의 연구를 단순히 정치·제도·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했던 당사자들의 참전동기,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 관념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문화적 전환의 시도야말로 기존 군사사 연구가 갖는 한계성을 넘어 연구주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원고투고일: 2014.7.1, 심사수정일: 2014.8.12, 게재확정일: 2014.8.20)

주제어 : 포수, 훈련방식, 군율, 조총, 참수급제, 연좌제, 군사문화, 군사혁명

81) 『선조실록』 권 102, 31년 7월 19일(임인).

<ABSTRACT>

## Training methods and military discipline of Chousun musketeer around the 17th century

Kim, Yeong-joon

This study is analysis on the training methods and military discipline of musketeer responsible for a key figure in Chousun army around the 17th century.

Since it was founded, Chousun dynasty faced the most complicated crisis around the 17th century when it had been invaded by Japan in 1592(임진왜란 壬辰倭亂) and Chung Dynasty in 1636(병자호란 丙子胡亂).

The military system of Chousun at that time was almost collapsed by the Japanese army's early offensive and it was very necessary for it to design a new one for substituting the old system.

According to its need, Chousun dynasty published the Training Book(훈련도감 訓練都監) in which Musketeer appeared as its key change.

Actually, the weapon called Musket was not at all new to Chousun because it had already used gunpowder. However, Chousun's army hadn't yet developed proper military tactics to utilize Musket systematically and organizationally.

On the contrary, the Japanese army had developed strong and effective heating tactics on the basis of the Musket imported in Europe, which affected one of causes that Chousun army was beaten in early stage of war.

However, we should notice that the Musket used in East-Asia then was different from that was used in Europe. And these differences were not only distinct from kinds of just a weapon,

but had an strong impact on military tactics and the way of war execution adapted by both countries. Thus, this study, by noticing these differences, analyzed the reason why Chouson dynasty had chose the Musket of other kind from the West as its major individual weapon system.

As a result, it found out that cultural concept affecting those who conducted the war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difference between military tactics.

For the reason, this study sought to find a cultural notion made up of such a military environment as well as the military history is not limited just to Military weapon systems, a combat or the military institution.

Key word : Musketeer, Training methods, Military Discipline, Musket, Reward system(Head hunter), Implicative system, Military culture, Military revolution.

